<h1>나 혼자만 레벨업-10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y4e1b2d93a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0화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스르르르륵.</p>  
<p>갑자기 옆의 모래가 아래로 움푹 꺼지며 경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"어, 어어!"</p>  
<p>진우는 모래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을 굴렀다.</p>  
<p>모래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고, 결국 진우는 두 손까지 사용해서야 간신히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.</p>  
<p>"헉, 헉, 헉."</p>  
<p>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기이하게도 모래 구덩이 가장 아래쪽 부근의 모래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.</p>  
<p>한 번만 발을 헛디뎠어도 저기까지 그대로 미끄러졌을 것이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.</p>  
<p>"아니..."</p>  
<p>잠깐.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예리해졌다.</p>  
<p>"끓는 게 아니야."</p>  
<p>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래 밑에서 뭔가 커다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예감이 좋지가 않았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, 살며시 뒷걸음치는 진우 앞에 갑자기 모래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.</p>  
<p>쏴아아-!</p>  
<p>폭포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, 모래가 냈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.</p>  
<p>"벌... 벌레?"</p>  
<p>모래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거대한 지네였다.</p>  
<p>키에에엑-!</p>  
<p>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놈의 머리는 5층 건물 옥상 높이에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꿀꺽 침을 삼켰다.</p>  
<p>'말도 안 돼...'</p>  
<p>확실히 놈은 말도 되지 않게 컸다.</p>  
<p>세상에 이런 크기의 지네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를 놀라게 한 것은 지네의 크기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"왜 저놈 머리 위에... 이름이 떠 있는 거지?"</p>  
<p>꿈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?</p>  
<p>진우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떠 보았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. 여전히 지네의 머리 위로 빨간색의 아홉 글자가 적혀 있었다.</p>  
<p>마치 게임 속의 몬스터처럼.</p>  
<p>'독이빨 거대 모래지네.'</p>  
<p>놈의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생김새만큼이나 마주치기 싫어지는 이름이었다.</p>  
<p>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'독이빨' 세 글자였다.</p>  
<p>놈의 대가리 아래쪽에 붙어 있는 어린아이 크기만 한 이빨 두 개가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저기에 찔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놈의 이름만 보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.</p>  
<p>그 커다란 이빨과 턱이 쉴 새 없이 열고 닫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꼭...</p>  
<p>"입맛을 다시는 것 같네."</p>  
<p>그때 머릿속에서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페널티 퀘스트: 생존]</p>  
<p>목표: 요구 시간까지 생존하세요</p>  
<p>요구 시간: 4시간</p>  
<p>남은 시간: 4시간 0분 0초.</p>  
<p>'농담이지...?'</p>  
<p>그러나 남은 시간이 3시간 49분 59초가 되자, 지네는 기다렸다는 듯 모래를 헤치며 덮쳐 왔다.</p>  
<p>솨솨솨솨솨솨-!</p>  
<p>"뭐, 뭐야?"</p>  
<p>진우는 급히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고민할 시간 같은 건 없었다.</p>  
<p>살려면 뛰어야 한다!</p>  
<p>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다.</p>  
<p>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눈앞에서 또 모래 기둥이 솟아올랐다.</p>  
<p>쏴아아!</p>  
<p>"으악!"</p>  
<p>진우는 거센 압력에 밀려 뒤로 넘어졌다.</p>  
<p>바닥을 구르다 급하게 몸을 일으킨 진우가 얼굴을 덮친 모래를 허겁지겁 털어 내다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이번엔 한두 개가 아니었다.</p>  
<p>쏴아아아!</p>  
<p>쏴아아아!</p>  
<p>어느새 모래 속에서 솟아오른 모래 지네 일곱 마리가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.</p>  
<p>키에에에엑!</p>  
<p>키에에엑!</p>  
<p>괴성을 지르는 지네들 아래에서, 진우의 얼굴이 노랗게 변해 갔다.</p>  
<p>"젠장..."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가 다시 병실에 나타난 것은 정확하게 4시간 뒤였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진우는 병실 바닥에 엎어져 괴롭게 기침했다.</p>  
<p>"콜록, 콜록. 퉤! 퉤!"</p>  
<p>입안이 자글자글한 느낌으로 가득했다.</p>  
<p>모래가 들어갔는지 눈도 매웠다.</p>  
<p>한참 신음하던 진우는 결국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.</p>  
<p>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.</p>  
<p>"헉... 헉... 대체... 뭐지...?"</p>  
<p>가쁜 숨을 몰아쉬는 진우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나타났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'페널티 퀘스트'를 완료하셨습니다.]</p>  
<p>진우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페널티 퀘스트?</p>  
<p>내가 벌받을 만한 짓을 했던가?</p>  
<p>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던 진우는 어제 하다 말고 덮어 둔 [일일 퀘스트]를 떠올렸다.</p>  
<p>'설마...?'</p>  
<p>그러고 보니 분명 퀘스트 미완료 시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가 주어진다고 했었다.</p>  
<p>"헉, 헉, 그게... 그게 망상이 아니었다고?"</p>  
<p>망상이 아니었다.</p>  
<p>꿈도 아니었다.</p>  
<p>굳이 꿈이니 생시니 하며 볼을 꼬집어 볼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뛰어다닐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, 지네 다리에 긁혔을 때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했다.</p>  
<p>모든 것은 현실이었다.</p>  
<p>진짜 죽을 뻔했다.</p>  
<p>"너무 하잖아... 헉... 헉..."</p>  
<p>페널티란 게 사람을 사지로 내던지는 것이었다니.</p>  
<p>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왔다.</p>  
<p>만약 이 모든 게 정말로 그 일일 퀘스트 때문이라면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, 또다시 기계음이 울렸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흠칫 놀랐지만 다행히 다른 퀘스트는 아니었다.</p>  
<p>[페널티 퀘스트 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'보상...?'</p>  
<p>보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.</p>  
<p>하지만 문제는 지금 뭔가를 확인하고 자시고 할 여력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었다.</p>  
<p>'보상이고 뭐고... 일단 좀 쉬자...'</p>  
<p>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곧 진우는 기절한 듯 잠에 빠져들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어머나! 여기 왜 이래?"</p>  
<p>다음 날 아침, 병실로 들어선 간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.</p>  
<p>환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, 주위는 온통 모래투성이가 아닌가?</p>  
<p>환자의 몸과 옷에도 모래가 가득했다.</p>  
<p>간호사는 진료 차트를 침대 위에 던져 놓고 다급히 호출 부저를 눌렀다.</p>  
<p>"여기 좀 도와주세요!"</p>  
<p>곧 주치의가 병실로 들이닥쳤다.</p>  
<p>"뭐야? 성진우 씨 왜 이래요?"</p>  
<p>"모르겠어요. 어젯밤까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."</p>  
<p>"일단 침대에 눕히죠, 하나, 둘!"</p>  
<p>두 사람은 진우를 들어 침대 위로 올려놓았다.</p>  
<p>그 과정에서 침대 위에 놔두었던 진료 차트 모서리에 진우의 손등이 긁혀 약간 찢어졌으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.</p>  
<p>"좀 봅시다."</p>  
<p>주치의가 이리저리 진우의 상태를 살폈다.</p>  
<p>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.</p>  
<p>"뭐야... 그냥 자고 있잖아?"</p>  
<p>주치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헌터협회에서 특별히 잘 봐 달라고 부탁했던 환자였다.</p>  
<p>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었다.</p>  
<p>"이대로 자게 놔두죠. 곤히 잠든 모양이니."</p>  
<p>주치의는 그렇게 말하고 가려다가 주위를 슥 둘러보더니 검지로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"그런데 이 방... 청소 한 번 해야겠네요. 요라 씨, 여기 뒷정리 좀 부탁드릴게요."</p>  
<p>"알겠습니다, 선생님."</p>  
<p>주치의가 병실을 나가자 간호사 최유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.</p>  
<p>별일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.</p>  
<p>환자 본인이나 가족들만큼은 아니지만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의사나 간호사는 없었다.</p>  
<p>특히 헌터 지정 병원에는 중상자가 많이 찾아온다.</p>  
<p>더 이상 자신이 맡은 환자가 잘못되는 일만큼은 사양하고 싶었다.</p>  
<p>"휴-."</p>  
<p>조금 진정된 그녀는 이제 어디서부터 병실 정리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, 우연히 바닥의 핏방울을 발견했다.</p>  
<p>"어머?"</p>  
<p>핏방울은 침대 바깥으로 뻗어 나온 환자의 손끝에서 떨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놀란 그녀는 상처를 찾아 황급히 진우의 손을 살펴보다 손등을 뒤집었다.</p>  
<p>"아니...?"</p>  
<p>분명 피가 흐른 흔적은 있는데 있어야 할 상처가 없었다.</p>  
<p>피를 닦아 내도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'설마... 상처가 그사이 아물어 버린 거?'</p>  
<p>유라는 떨리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진우의 안색을 살폈다.</p>  
<p>진우는 아직 세상모르게 잠들어 있었다.</p>  
<p>7. 일일 퀘스트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일일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.]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쩍 떠졌다.</p>  
<p>몸을 벌떡 일으킨 진우는 가장 먼저 시간부터 확인했다. 시곗바늘이 막 오후 4시 30분을 지났다.</p>  
<p>아직 12시가 되기까지는 7시간 30분이라는 여유가 남아 있었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진우는 메시지함을 열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일일 퀘스트 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]</p>  
<p>팔굽혀 펴기 100회 : 미완료 (0/100)</p>  
<p>윗몸 일으키기 100회 : 미완료 (0/100)</p>  
<p>스쿼트 100회 : 미완료 (0/100)</p>  
<p>달리기 10km : 미완료 (0/10)</p>  
<p>※주의: 일일 퀘스트 미완료 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.</p>  
<p>"또냐?"</p>  
<p>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.</p>  
<p>아니, 차라리 잘된 것인지도 모른다.</p>  
<p>아예 불가능하거나 해석이 난해한 퀘스트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.</p>  
<p>몸이 좀 힘들기는 해도 시간만 들이면 어떻게든 끝낼 수 있는 퀘스트니까.</p>  
<p>진우는 이번엔 아예 바닥으로 내려가 팔굽혀 펴기를 시작했다.</p>  
<p>"하나."</p>  
<p>또 수상한 곳으로 끌려가 죽기 직전까지 내몰릴 수는 없지 않은가?</p>  
<p>"둘."</p>  
<p>어젯밤에는 운 좋게 살았지만, 오늘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었다.</p>  
<p>"셋."</p>  
<p>잠깐 고개를 들어 퀘스트 내용을 살펴보니 팔굽혀 펴기를 할 때마다 수치가 기록되고 있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팔굽혀 펴기 1회를 성공하셨습니다.]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미완료 (7/100)]</p>  
<p>띠링.</p>  
<p>[팔굽혀 펴기 1회를 성공하셨습니다.]</p>  
<p>[팔굽혀 펴기 100회 : 미완료 (8/100)]</p>  
<p>혹시나 싶어서 반쯤 내려가다 올라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,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았다.</p>  
<p>어제 왜 카운트가 뜨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.</p>  
<p>제대로 된 팔굽혀 펴기가 아니면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.</p>  
<p>'허... 거참.'</p>  
<p>진우는 기막혀하면서도 팔에 준 힘을 풀지 않았다.</p>  
<p>아직 남은 팔굽혀 펴기 회수는 50개.</p>  
<p>그 후에도 윗몸 일으키기, 스쿼트, 달리기가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그렇게 3시간이 지난 후.</p>  
<p>팔굽혀 펴기 100회 : 미완료 (100/100)</p>  
<p>윗몸 일으키기 100회 : 미완료 (100/100)</p>  
<p>스쿼트 100회 : 미완료 (100/100)</p>  
<p>달리기 10km : 미완료 (9/10)</p>  
<p>"헉, 헉, 헉, 헉."</p>  
<p>병원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온 진우는 자신의 병실 앞에서 몸을 기역 자로 숙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.</p>  
<p>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순 없었다.</p>  
<p>'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...'</p>  
<p>간신히 문을 열고서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.</p>  
<p>그랬더니.</p>  
<p>띠링.</p>  
<p>[현재까지 달린 거리 : 10km]</p>  
<p>[달리기 10km를 완료하셨습니다.]</p>  
<p>드디어 끝났다.</p>  
<p>"헉... 헉..."</p>  
<p>진우는 털썩 무릎 꿇었다. 입에서는 단내가 진동했다. 이마와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.</p>  
<p>"헉... 헉..."</p>  
<p>땀을 뻘뻘 흘리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진우에게 낯설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'일일 퀘스트: 강자가 되기 위한 준비'를 완료하셨습니다.]</p>  
<p>[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그냥 어제처럼 뻗어 버릴까 잠시 고민했던 진우는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.</p>  
<p>이번에는 그놈의 보상이란 게 뭔지 확인이나 한번 해 보고 싶었다.</p>  
<p>"확인."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래와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보상 1. 상태 회복</p>  
<p>보상 2. 능력치 포인트 +3</p>  
<p>보상 3. 랜덤 박스 1개</p>  
<p>[전부 수락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'뭐가 이렇게 많아?'</p>  
<p>보상 내역을 보고서 처음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.</p>  
<p>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꽤 유용할 것 같은 보상도 있었고,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지는 보상도 있었다.</p>  
<p>일단은 보상 1번, 상태 회복이 시급했다.</p>  
<p>지금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.</p>  
<p>실패 페널티가 있었으니 완료 보상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았다.</p>  
<p>어차피 밑져야 본전 아닌가?</p>  
<p>설마 보상을 준다고 해 놓고선 다시 페널티 존에 던져 넣지는 않겠지.</p>  
<p>"수락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